

Formosa, LDPE 한국진출 초읽기!

국내 시장상황파악 끝나 ... LG화학 · 한화석유화학보다 경쟁우위 자신

타이완의 세계적인 석유화학기업인 Formosa의 LDPE 국내시장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Formosa Korea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국내 LDPE(Low-Density Polyethylene) 시장에 대한 상황파악이 끝난 상태로 범용수지는 코스트 경쟁력 우위를 내세워 국내시장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향후에는 국내 플랜트 신설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현재 Formosa는 Formosa USA를 보유하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데 미국에서 얻은 수익을 타이완으로 이전하지 않고 미국에 재투자하고 있어 진출국의 호평을 받고 있다.

당초에는 PVC(Polyvinyl Chloride)도 국내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파악한 바 있지만 진출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 포기한 상태이다.

중국에서는 Formosa와 국내 생산기업인 LG화학, 한화석유화학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외교적인 문제로 Formosa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합성수지 수입량 중 타이완산이 1위를 유지하고 있다.

Formosa는 석유정제, NCC(Naphtha Cracking Center)에서 다운스트림까지를 총망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가격경쟁력이 국내 석유화학기업보다 높은 상태이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50%에 달하는 나프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량을 Formosa에서 수입하고 있다.

한편, Formosa는 현재 국내에서 중이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인천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공장이 자동화돼 있어 근무하는 직원이 6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환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7/15>